

“한 사람이 온전히 서는 것이 진정한 부흥”

한 영혼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
첫 전도 대상은 성도 자녀
'리빙 투게더' 지역사회 섬김

복음연합감리교회(원흥연 목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다시 품는 교회를 향한 목회 비전을 밝혔다.

김호용 목사가 은퇴한 후 복음연합감리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을 맞은 원 목사는 평균 연령이 비교적 높은 교회의 특성을 고려해 시니어 성도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한편,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함께 펼치고 있다.

원 목사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래서 심방하고 케어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대표적인 사역으로 ‘리빙 투게더(Living Together)’를 소개했다.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취지로 지역사회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양·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살 만



복음연합감리교회 교인들과 원흥연 목사(앞줄 오른쪽). © 복음연합감리교회

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리빙 투게더에서는 뜨개질, 영어회화, 스마트폰 활용, 요가 등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한 학기는 약 두 달 동안 운영된다. 교단 내 펀드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음악 클래스도 새롭게 시작한다. 교회에 있는 음악 전공자들의 재능을 활용해 피아노와 드럼, 첼로 등을 배우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 목사는 “지역사회에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도움

을 드리고 싶다. 가능하다면 80% 정도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나머지 20% 정도만 부담하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활동도 리빙 투게더의 일환이다. 성도들은 매주 화요일 교회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플라스틱 등을 치우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원 목사는 LA 코리아타운을 비롯한 한인교회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로 다음 세대의 이탈을 꼽았다.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주위를 보면 주말에 청소년들이 거의 스포츠나 여러 액티비티에 빠져 있다”

특히 코리아타운 지역은 학군 등의 영향으로 자녀를 둔 젊은 가정 이 적은 데다, 젊은 세대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방식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예전에는 교회가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소셜 라이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러닝 크루나 각종 스포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분산돼 있다”

원 목사는 “이것은 저희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도의 방식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마트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전도도 있지만,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토마스 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이성현 목사, 글로벌감리교회 첫 한인감독

글로벌감리교회(GMC)가 교단 역사 첫 전임 감독단(Assembly of Bishops)을 선출했다. 신임 감독들은 6년 임기로 GMC 교단을 섬기게 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2026년 GMC 총회는 9월 2일(수) 오후 본회의에서 첫 전임 감독을 선출했다.

예배와 기도로 시작된 감독선출 과정은 연회, 지역 감독구 위원회, 총회 감독위원회의 논의와 분별과

정을 거쳐, 총회 대의원 전체가 교단 전체를 이끌어갈 감독을 세우는 기록한 분별의 과정으로 이어졌다.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2024년 교단 창립총회에서 시작된 2년 임기의 임시 감독 체제를 마감하고, 요하네스버그 총회에서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GMC를 이끌 8명의 전임감독을 선출했으며, 감독들은 9월 5일 (토) 감독성별예배를 통해 세워지며, 임기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GMC 『교리와 장정(Book of Doctrines and Discipline)』 제604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총회에 앞서 지역 감독위원회 대표들이 모여 8개의 감독구를 구성했다.

각 지역 감독위원회는 감독 후보자들을 면담하고 분별과정을 거쳐 주요 후보들의 1~5년 순위를 정했다. 이 순위는 총회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공유되었으며, 후보자들을 놓고 기도하며 선출과정 시간을 가

졌다. 요하네스버그 총회에서는 전체 대의원들이 각 감독구를 섬길 감독을 한 명씩 선출했다.

투표는 8개 지역 모두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감독구 투표를 마친 후 결과가 발표되었다. 총 5차례의 투표를 거쳐 8명의 감독이 모두 선출되었다.

새롭게 선출된 감독들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6년 동안 글로벌감리교회의 8개의 감독구를 섬기게 된다.

김민선 기자



이성현 목사.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믿고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13-700-3239
yunyoungkwag@gmail.com
3030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정부보조
상담 환영

NEWSTARS
Realty & Inv.

DRE# 01935957 **곽 운영**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www.marhlaw.com

■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접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H-Urban Like CSLB # 854389

213-310-1800

교회·학교·커머셜 빌딩·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교회 및 비영리단체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L4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eu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 T S SOLAR DESIGN

213-500-8000

비영리단체 및 교회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 이틀 앞으로



9월 13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릴 2026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를 앞두고, 지난 8월 31일 오전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는 공동대회장인 데이빗 디아즈(David Diaz) 목사가 담임하는 뉴비기닝교회(New Beginning)에서 영어권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지도자들(로버트 올프강, 엘머 잭슨, 길버트 자라고자, 스티븐 데이빗 등)을 만나 이번 기도회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대회 준비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

성시화운동본부 9월 정기운영위원회

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한기홍 목사)는 9월 정기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역을 보고하는 한편, 향후 사업과 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1부 경건회와 2부 정기운영위원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시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경건회에서는 신용환 목사가 기도했으며, 이종희 목사가 느헤미야 2장 17~20절을 본문으로 느헤미야의 믿음과 헌신을 강조하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도시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8월 31일 개강한 The Great Commission Seminary 관련 사항 등 그동안 진행된 사역들이 보고됐다.

토의 및 결의 시간에는 리빙워십 대표 조셉 리 목사를 성시화운동본부 자문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또한 다민족기도회를 오는 9월 13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제11회 설교 페스티벌은 10월 10일 갈보리선교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차세대를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운영위원회는 유스 하이어콜링 사역을 위해 3,000달러를 지원하기로

주요 사역 계획

- 9.11 금 성지순례 오리엔테이션 | 미주평안교회
- 9.13 주일 다민족 기도회 | 은혜한인교회
- 9.14 월 컴미션 대추 농장 방문
- 10.7 수 정기운영위원회 모임 오전 10시
- 10.10 토 설교 페스티벌 | 갈보리 선교교회
- 12.4 금 ALO 기독교 오페라단 공연 | 감사한인교회

지원 및 추진 사역

- 할로윈 기독교 대안 행사
- 유스 하이어 콜링 위해 3,000 달러 지원

결의했다.

이와 함께 할로윈 시기에 교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독교적 대안 행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컴미션(COMMission, 대표 이재환 선교사)의 대추 농장을 9월 14일 방문하기로 했다. 방문단은 이날 오전 9시 미주평안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전자신문 편집위원으로는 김재권

장로, 이지란 장로, 옥세철 장로, 이종희 목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성지순례 참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9월 11일 미주평안교회에서 진행하며, ALO 기독교오페라단 공연은 12월 4일 감사한인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성시화운동본부의 다음 정기운영위원회는 10월 7일(수)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다. **조셉 리 기자**



레위성가단 창단 40주년 공연

레위성가단(조신천 단장, 지휘 강정엽)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라”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0일(토) 오후 5시에 라 팔마 존 F. 케네디 하이 스쿨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기념 공연을 개최한다.

강정엽 지휘자, 클라라 리 지휘자, 피아노 김성호, 피아노 차은영, 첼로 이수정, 소프라노 윤예원 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주소: 8281 Walker St. La Palma, CA 90623

문의: 조신천 단장 714-323-7420

→ 1면 기사 (복음연합감리교회)에 이어서

“주변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교회에 상처를 입었거나 신앙생활을 떠난 분들을 다시 초청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목사가 다음 세대 사역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대상은 먼저 교인들의 자녀들이다. 부모 세대는 교회에 출석하지만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한인교회의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인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전도 대상이 교인들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어 “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마음 아프다. 그것이 1차적인 전도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어권 예배, 즉 EM 사역을 세우고 싶다는 비전도 밝혔다.

“EM을 만들고 싶다. 건물을 찾



교회 강대상 앞에서 원홍연 목사. © 기독교일보

기 어려운 영어권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는 광고를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영어권을 대상으로 흠커밍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원 목사는 영어권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예배와 공간을 마련하는 일을 계속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에 다니

지 않는 자녀들을 초청해 보자고 말하고 있다. 영어권이라면 필요하면 영어예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목사가 그리는 복음연합감리교회의 목회 방향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면서 결국 우리 신앙인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는 “진정한 신앙인은 먼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흥을 숫자적인 부흥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도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서야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강조했다.

시니어 성도들에게도 단순한 종교생활을 넘어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 지금까지 뿌린 씨앗을 잘 거두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신앙이 종교적인 행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다”고 했다.

현재 복음연합감리교회는 시니어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중고등부 가정과 젊은 세대가 다시 교회에 연결될 수 있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복음연합감리교회 :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문의: 323-641-0691

이메일: lagumc1200@gmail.com

2026 다민족연합기도대회

“Repent, Revive, Restore”

일시 2026년 9월 13일(주일) 4:0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92833)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시편 (Psalms) 144:15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미국이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7일에는 독립250주년을 맞아 정부 주도로 One Nation under God에 나라를 재봉헌하는 Rededicate 250 감사와 찬양과 기도과 재헌신의 축제를 수도의 Nation Mall에서 하루종일 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축제였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각성과 부흥의 파도가 곳곳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다민족성도들이 함께 모여 미국에 대부흥이 임해 미국이 여호와로 자기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고문 : 송정명, 한기형, 김영길, 김인식, 민종기, 최홍주, 노창수, 이종용, David Andrade, Jorge Fuentes, Peter Xu, Linh Van Huynh(이상 목사)

대표대회장 : 한기홍 목사

공동대회장 : 강준민, 고승희, 고태형, 구봉주, 국윤권, 권혁빈, 김경진, 김기동, 김은목, 김종규, 김태형, 김한요, 남성수, 민경영, 박신웅, 박은성, 손창민, 신승훈, 신용환, 이원준, 진유철, 최국현, David Diaz, Elmer Jackson

준비위원장 : 강순영, 공동준비위원장 : 심상은, Sam Han(영어권), 사무총장 : 강태광, Wolf Gang

주관 : 다민족연합기도대회준비위원회

주최 : 은혜한인교회, JAMA, OC교협, 남가주교협, 성시화운동본부, 청교도신앙회복운동

후원 : 미주복음방송 및 크리스천언론사들, 시온산재단, CMF, OC장로협의회, 각지역교협,목사회, 여성목사회, OC기독교전도연합회

문의 : 강순영(310-995-3936), 심상은(714-229-8492), Sam Han(714-507-8494), 강태광(323-578-7933)



송정명 목사 “목회는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자”

월드쉐어 USA 목회자 멘토링 모임

월드쉐어 USA가 주최한 ‘9월의 멘토-송정명 목사, 멘토와의 만남’이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열렸다.

‘50년 사역 여정, 감사와 아쉬움-내가 50대 목회자로 돌아간다면?’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송정명 목사는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후배 목회자들에게 성실함과 기도, 결단, 가족에 대한 배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목사는 먼저 자신의 목회가 남들보다 늦게 시작됐다는 점을 말하며 “목회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이 두 시간 할 때 나는 네 시간 목회한다는 생각으로 목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미국에 처음 왔던 1975년을 회고하며 “미국에 왔을 때 아는 목회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 임동선 목사를 만나게 하였고,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당시 한 달 전도사 사역 사례비가 50달러였다”며 “전도사 사역부터 중고등부 사역, 설교 사역까지 맡았다. 쫓겨나지 않은 전도사였다”고 당시를 웃으며 회상했다.

송 목사는 자신의 목회 여정에서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동양선교교회에서 사역할 당시 집에서 교회까지 30마일이 넘는



‘9월의 멘토-송정명 목사, 멘토와의 만남’이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월드쉐어 USA 주최로 열렸다. © 기독일보

거리를 오갔지만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역에 몰입한 나머지 가족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토요일에 사역하던 어느 날, 이웃이 아이들에게 “너희 부모는 언제 이혼했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쉬는 날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가족을 돌보는 책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회는 머리가 아니라 무릎으로

송 목사가 이날 가장 강조한 것은 ‘무릎으로 하는 목회’였다. 그는 “젊은 세대는 머리로 목회하려고 하는데 목회는 무릎으로 해야 한다. 저는 후배들에게 목회를 무릎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목회를 눈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 목사는 목회자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엎드려서 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조국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무릎으로 하는 목회가 되어야 합니다.”

송 목사는 동양선교교회에서 13년간 사역한 후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게 됐던 과정도 솔직하게 나눴다. 이후 미주평안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새로운 목회 여정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가 처음 미주평안교회를 찾았을 당시 교회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7개월 동안 내지 못하고 있었고, 장년 성도는 20명, 아이들은 10명 정도였다. 페이먼트가 어려운 자체 건물을 갖고 있었지만 새벽기도회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민교회 목회 현실 속에서 목회자가 목회적 방향과 주도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민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목회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며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단해야 할 때 미루지 말아야

송 목사는 결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목회자는 그 자리에서 결단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며 “다음 기회로 미루면 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는 담

임목회자가 책임감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가장 먼저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으로 ‘말의 절제’를 꼽으며, 솔직한 일화를 나눴다.

그는 한 권사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예배가 오전 11시에 시작하는데 늘 11시 15분쯤에 오는 권사에게 시간을 지켜달라고 권면했던 일이었다. 당시 그 권사는 토요일 밤 늦게 아들의 전화를 받아 늦게 잠들게 된 사정을 설명했고, 이후 한 동안 시간을 지켰지만 다시 늦게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어느 주일 설교를 위해 강단에 올라가던 중 그 권사가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송 목사는 순간적으로 “시간 좀 지키세요”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 후 그 권사는 교회를 떠났다.

송 목사는 이 일을 돌아보며 “이민교회에서는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지금도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말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다. 큰 실수 중 하나였다”고 고백했다.

50년 목회 경험을 가진 원로 목회자가 자신의 성공적인 사역뿐 아니라 말 한마디로 인해 관계가 무너졌던 경험까지 후배들에게 솔직하게 전했다.

송 목사는 50대로 돌아간다면 자신의 목회 경험을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세우는 데 더 많이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50대로 돌아간다면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며 “목회자를 키워나가야 이민교회가 서간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멩 기자

“장애가 꿈을 막지 않도록” 밀알 장학생 모집

남가주밀알선교단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돕기 위해 2027년도 밀알장애인장학생 지기금 장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밀알장학생’,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꿈나무장학생’, 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복지

생’ 등이다.

밀알장학생은 신청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본인 신앙 간증문, 수입증명서, 추천서 1매를 제출해야 한다.

꿈나무장학생은 신청서와 재학 또는 소속기관 증명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추천서 1매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생은 신청서와 본인 신앙 간증문, 수입증명서, 추천서 1매가 필요하다.

장학금은 밀알장학생과 근로복지생의 경우 1인당 연간

3,600달러로, 매월 300달러씩 지급된다. 꿈나무장학생에게는 1인당 1,000달러가 일시 지급된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4일까지이며, 우편 접수의 경우 해당 날짜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서류에 한해 인정된다.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주소: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전화: 562-229-0001

이메일: admin@milalsca.org

하정완 목사 초청 부흥회

부에나파크교회(김성남 목사,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는 9월 11일(금)부터 15일(화)까지 서울 꿈이 있는 교회 하정완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한다.

부흥회는 11일(금)부터 15일(화)까지 진행되며, 매일 저녁 7시에 말씀집회가 열린다. 12일(토) 오전 6시에는 특별기도회, 13일(주일) 오전 10시 50분에는 영화 ‘페이스메이커’를 통한 영화설교가 마련된다.

부흥회: 9/11(금)-9/15(화)
9/11(금) 오후 7시
9/12(토) 오전 6시, 오후 7시
9/13(주일) 오전 10시 50분: 영화 설교 (페이스 메이커, 히 12:1-2)
9/14(월), 9/15(화) 오후 7시

2026 부에나파크교회

천주목정

부흥회

크리스천의 계속 세상 사는 법 (히브리서 12:1-2)

천주목정

부흥회

크리스천의 계속 세상 사는 법 (히브리서 12:1-2)

천주목정	9/11 Fri. 7:00 PM 예배소서 21-5	창방성을 살고 있습니까
천주목정	9/12 Sat. 7:00 PM 예배소서 312-56	십자가만 보고 걸어가라
영화	9/13 Sun. 10:50 AM (히브리서 12:1-2)	페이스메이커 얼마나 맛있는가?
천주목정	9/14 Mon. 7:00 PM 예배소서 123-2	앞서 가는 사람이야 한다
천주목정	9/15 Tue. 7:00 PM 오찬개회 11:00-12:00	그 날에 우리는 만나리라

특별한 목회자

하정완 목사

하정완 목사는 1975년 미국에 이민 온 후 1978년 부에나파크교회에 담임하게 되셨으며, 19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19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19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19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0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1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2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3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4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5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6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7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8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29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0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1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2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3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4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5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6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7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8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39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0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5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6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6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7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7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8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8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9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19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20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20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21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21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22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22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23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23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24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245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으며, 4250년 부에나파크교회에서 담임하게 되셨

한샘교회 9주년...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임직 및 추대

9월 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한샘교회(이순환 목사)가 창립 9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거행했다.

이날 박창래, 신조웅 씨가 장로로 추대되고, 김인식, 심요한, 이평화 씨가 안수집사로 임직했다. 또한 조길희 씨가 권사로 임직하고 노정림, 신옥례, 티나 백, 김희심, 고재숙, 박정숙, 임정은, 마재월, 박미옥 씨가 권사로 추대됐다.

김병호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이순환牧사는 사도행전 9장 10-19절을 본문으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디’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사울과 아나니아의 고령관님이 깨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목사는 사울을 안수하라는 명령 앞에 아나니아가 보인 반응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다면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섣부른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나니아도 사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반



한샘교회가 9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장로, 집사 임직식을 거행했다. ©기독교일보

발한다.”고 말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원수와의 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안수해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가 들은 소문이 아나니아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부정한 동물들을 먹으라’는 명령을 거부한 사건, 요나의 불순종, 아브라함이 받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

령을 언급하며,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이 상식과 경험, 세상의 원리와 충돌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순종하지 못한다. 왜?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면서 이리저리 따져본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원리가 머릿속에 가득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보다 하늘의 원리를 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는 아나니아의 사울의 안수 사건으로 돌아와서, “아나니아는 말

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했다”며, 이 순종을 통해 ‘원수’가 ‘형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소원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고, 고정시키려 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에 대해 경계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하고 끈질기게 요구하면 결국 하나님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기도

고정시켜 버린다. 하나님을 내 기도 내용에 가둬버리는 것이다.”

“끈질기게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끈질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이지, 내 소원과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향이 잘못되었다. 내 뜻을 관철시킬 때까지 하나님을 설득시키리라 하는 고집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 목사는 겹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끝으로 임직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우리는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추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순종하는 일꾼이 되자”고 당부하며 설교를 마쳤다.

설교에 이어서 이순환 목사의 인도로 임직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예배는 이순환 목사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주디 한 기자

故 임동선 목사 서거 10주년, 그의 선교 열정 무대에 오른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가 설립자 고 임동선 목사 서거 10주년을 맞아 그의 삶과 선교 정신을 조명하는 뮤지컬을 선보인다.

임성진 총장은 “설립자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분의 선교 정신을 되새기고자 이번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지난 2023년 선보였던 오페라틱 오라토리오를 발전시킨 형태다.

당시 공연이 영상과 나레이션을 중심으로 임 목사의 생애를 전달했다면, 이번에는 배우들의 연기와 음악을 결합한 뮤지컬 드라마 형식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윤임상 교수는 “지난 공연에서는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뮤지컬적인 요소는 최소화했



월드미션대학교가 고 임동선 목사의 삶을 담은 뮤지컬 공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독교일보

다”며 “이번에는 실제 배우들이 연기를 해나가는 것이 중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작품은 임 목사가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자

신이 받은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 열방에 전하는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선교 음악회 · 장학금 전달 · 뮤지컬로 이어지는 3부 행사

이번 행사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선교 축하 음악회와 장학금 전달식, 선교 뮤지컬 드라마 등 3부로 구성된다.

1부 선교 축하 음악회에는 월드미션대학교 졸업생들이 참여해 약 35분 동안 음악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장학금 전달식이 마련된다. 이번 장학금에는 40개가 넘는 교회와 단체가 참여했으며, 각 단체에서 추천·선정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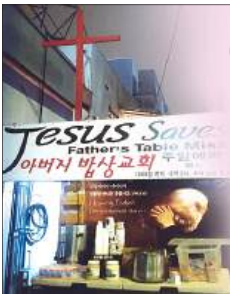
3부에서는 뮤지컬 드라마가 약 1시간 30분 동안 펼쳐진다.

공연에는 남가주 무대예술 그룹인 극단 ‘시선’이 참여한다. 도산 안창호를 소재로 한 공연 등을 통해 한인사회에 뮤지컬 문화를 소개해온 단체로, 대표 클라라 김이 전체 프로덕션을 맡고 최원현 씨가 연출과 주연을 담당한다.

또한 도산 안창호 공연에 참여했던 배우들과 월드미션대학교 졸업생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임성진 총장은 이번 공연이 고 임동선 목사를 추억하는 기념행사를 넘어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홀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네이션해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JAY PARK이 자신있게 소개하는

40년 보험 전문인
자동차, 사업체, 메디케어 보험
CA ins. Lic#OC84280
(213) 380-9801
2975 Wilshire Blvd., Suite 506
Los Angeles, CA 90010



TRUSTED SCHOOL IN TOWN



LEARN MORE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센터메디컬그룹

제 5 회 시니어

골프 대회



총 **\$10,000** 상당의
푸짐한 상품을
참가자 전원과 함께 나눕니다!



이웃돕기 성금 기부

참가자 이름으로 **100%**
전액 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10시** 샷건
LOS COYOTES COUNTRY CLUB
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



센터메디컬그룹 문의

888 - 847 - 3098

문의시간

9AM ~ 5PM

“36주 만삭 낙태 산모 무죄? 대법원에선 바로잡혀야”

태여연, 항소심 무죄재판부 규탄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태여연)은 8일 36주 만삭 태아 낙태 2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바른 재판’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서 의사가 인위적으로 죽게 할 것을 산모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1심의 재판 결과를 뒤집고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규탄하면서 대법원의 바른 판결을 위해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36주 만삭 태아가 제왕절개 방식으로 모체 밖으로 나온 후 사망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의사가 인위적으로 죽게 할 것을 산모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 권모 씨가 태아가 사산될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수술후 회복 과정 등이 담긴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 채널인 유튜브에 게시한 것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죽는다는 상황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태여연은 9월 8일 성명서에서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산모 권 씨는 산부인과 진찰을 통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미 7개월을 넘긴 상태였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산부인과 두 곳을 더 방문해 낙태 수술을 문의했고, 두 병원으로부터 태아 심박이 정상이고 한 달 내 출산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두 병원은 모두 낙태 수술을 거절했다. 산모 권 씨는 임신 주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이후 찾아간 병원에 높은 낙태비용 900만 원까지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산모 권 씨가 자신이 낙태를 하면 살아있는 36주 태아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는 점이다. 단지 태아가 살해되는 장소가 자궁 안이나, 밖이냐에 따라 살인 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권 씨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자세히 모른다”며 “산모 권 씨는 태아가 사산돼 나올 것이라는 브로커 말의 뜻을 모르고 낙태 과정에서 살아있는 태아가 단순히 죽을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산모 권 씨가 태아



관련 보도 화면. ©YTN

가 출산 전 자궁 안에서 죽어서 나올 것이라고 이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산모 권 씨가 만삭 낙태를 유튜브에 공개한 것은 태아가 자궁안에서 죽었기 때문이라기 보다, 낙태에 대한 형법이 없어져 죄가 안 되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산모가 ‘자신의 태아가 자궁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만삭 낙태가 죄가 안 되는 줄 사전에 알아서’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는 산모의 의학적·법률적 사전 지식이 대단한 듯 판단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태여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 의료진의 구체적 살해 방법이나 장소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산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살아 있는 태아 생명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감수하였는지”라며 “특히 권모 씨가 임신 36주라는 사실과 태아 건강상태를 알게 된 후에도 낙태를 적극 추진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를 단순히 브로커의 ‘사산된다’는 설명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살아있는 태아를 낙태할 때, 언제 어디서부터가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산모가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산모 권 씨는 자신이 낙태를 하면 살아있는 태아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산모 권 씨가 자신의 태아가 자궁 안에서 죽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무죄라

고 판결했는데, 이는 매우 편향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태여연은 “산모의 주장을 편향되게 해석해 왜곡 판결한 항소심 재판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바로잡히기를 바라며,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36주 만삭 태아 살인 항소심에서 산모에게 무죄 선고한 편향된 재판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36주 만삭 태아가 제왕절개 방식으로 모체 밖으로 나온 후 사망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서 의사가 인위적으로 죽게 할 것을 산모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1심의 재판 결과를 뒤집고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항소심의 재판 결과는 산모의 주장을 편향되게 해석하여 왜곡 판결한 것으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 권모씨가 태아가 사산될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수술후 회복 과정 등이 담긴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 채널인 유튜브에 게시한 것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죽는다는 상황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산모 권씨는 산부인과 진찰

을 통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임신 7개월을 넘긴 상태였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산부인과 두 곳을 더 방문하여 낙태수술 문의를 하였고 두 병원으로부터 태아의 심박은 정상이고 한달이내 출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두 병원 모두 낙태수술을 거절하였다. 산모 권씨는 임신주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이후 찾아간 병원에 높은 낙태비용 900만원을 지불하였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산모 권씨는 자신이 낙태를 하면 살아있는 36주 태아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 단지 태아가 살해되는 장소가 자궁안이나, 자궁밖이냐에 따라 살인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권씨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은 자세히 모른다. 산모 권씨는 태아가 사산돼 나올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의 뜻을 모르고 낙태과정에서 살아있는 태아가 단순히 죽을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산모 권씨가 브로커의 말을 태아가 출산되기 전에 자궁안에서 죽어서 나올 것이라고 이했했다는 주장을 받아드린 것이다.

산모 권씨는 자신의 만삭낙태를 유튜브에 공개한 것은 자신의 태아

가 자궁안에서 죽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낙태에 대한 형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낙태가 죄가 안되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산모가 자신의 태아가 〈자궁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만삭낙태가 죄가 안되는 줄 사전에 알기 때문에〉 유튜브에 공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드린 것이다. 산모의 의학적 법률적 사전 지식이 대단한 것처럼 판단한 것이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 의료진의 구체적인 살해방법이나 살해장소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산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살아 있는 태아의 생명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감수하였는지이다. 특히 권모 씨가 임신 36주라는 사실과 태아의 건강상태를 알게 된 후에도 낙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를 단순히 브로커의 “사산된다”는 설명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태아를 낙태할 때 언제 어디서부터가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산모가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산모 권씨는 자신이 낙태를 하면 살아있는 태아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산모 권씨가 자신의 태아가 자궁안에서 죽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무죄를 판결한 것은 매우 편향된 판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자신의 36주 태아를 살해한 일에 가담한 산모 권씨를 무죄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로 잡힐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26년 9월 8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요,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김

- 발행인 : 이인규
- 이사장 : 폴킴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번호사 : 정찬웅
-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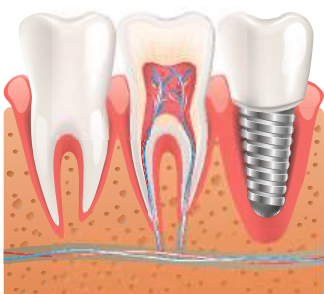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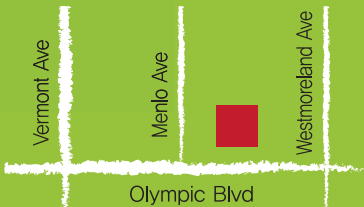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자신보다

가족 걱정을 늘 먼저 하는 당신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SMG는 진료 이전에
당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의사와 병원,
보험 네트워크를 연결한 이유도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30년동안 당신을 지켜온 SMG 기록

5,500명의 의료진 | 폭넓은 병원 및 보험사 | 우수 의료 제공자



800.611.9862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웰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젠슨 황의 리더십에 대한 열광 속, 목회자들이 배울 점

최근 한 경제 칼럼에 소개된 엔비디아(NVIDIA) 젠슨 황 CEO의 리더십 분석 기사가 깊은 여운을 줍니다(칼럼 보기). 글로벌 취업 플랫폼 글래스도어 조사에서 직원 99%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최고 CEO 1위에 오른 그의 비결은 기술력 이전에 ‘사람을 세우고 함께 뛰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30년 앞을 내다본 해안, 40명이 넘는 직속 보고자와 현장 엔지니어를 가감 없이 있는 수평적 소통, 구내식당에서 줄을 서고 밤새 현장과 뒹구는 겸손, 그리고 실패를 문책 대신 배움의 자산으로 삼는 회복탄력성까지.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격식 대신 본질에 몰입하는 그의 모습은, 오늘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도 정직한 영적 거울이 되어 다가옵니다.

세속 기업의 성공 방식을 교회가 맹목적으로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돌보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목양지에서, 과연 우리는 세상의 건강한 리더들보다 더 진실하게 동역자들을 품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30년 전 그래픽 카드 제조사였던 엔비디아를 문명 전환의 중심축으로 키운 힘은 그의 미래 안목입니다. 수십 년 뒤를 바라보고 그래픽 처리장치 GPU와 쿠다(CUDA) 생태계에 사운을 걸었던 통찰은, 목



젠슨 황 CEO가 ‘유퀴즈’에 출연해 ‘인간성’을 강조하는 모습. ©유튜브

회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묵묵히 심는 청지기적 헌신을 환기합니다. 당장 눈앞의 교인 수나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열매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수년 앞을 내다보며 한 영혼을 말씀의 제자로 빚어내는 영적 인프라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목회가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직급을 허문 그의 ‘연결의 리더십’입니다. 목회자는 당회와 제직회라는 제도적 계급 위에 군림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성도 각자에게 주신 고유의 은사가 유기적으로 꽃피도록

돕는 영적 연결자여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주방과 주차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성도들의 작은 탄식과 기도제목을 직접 귀담아듣는 수평적 동역이 살아날 때, 교회는 비로소 살아 숨 쉬는 유기체가 됩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높은 강단이나 엄숙한 가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젠슨 황이 화려한 의전 대신 소탈하게 현장을 지키듯, 목회자 역시 완벽한 영적 영웅의 가면을 벗고 가식 없는 솔직함으로 성도들의 눈높이에 서야 합니다.

공동체의 위기와 아픔을 투명하

게 나누며 십자가 사랑의 언어로 함께 울어줄 때, 성도들은 목회자를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뛰는 영적 아비이자 참된 동역자로 신뢰하게 됩니다.

사역의 시행착오를 대하는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려는 새로운 시도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책망과 책임 전가 대신 배움과 성숙의 기회로 풀어주는 넉넉한 은혜의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 래야 교회 안에 거룩한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회복탄력성이 싹틔웁니다.

아울러 보여주기식 행사와 불필요한 행정의 군더더기를 과감히 덜어내고, 부교역자들과 평신도 리더들이 말씀 연구와 골방 기도, 영혼을 향한 파스한 심방이라는 목양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아껴주어야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가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마지막 비결로 ‘가족 중심 삶과 내면 절제’를 꼽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첫 번째 목회지로 돌보지 않고 사역 성공에만 매몰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과 같습니다. 배우자와의 깊은 영적 교제, 자녀를 향한 따뜻한 사랑,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정갈한 일상이 든든히 받쳐줄 때, 흔들리지 않는 영적 권위와 지속 가능한 목양의 힘이 흘러나옵니다.

AI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세상의 리더들도 이토록 자신을 낮추며 본질과 사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피값으로 사신 양떼를 위탁받은 목자들에게 요구되는 사랑과 겸손의 무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한 CEO가 던진 울림 속에서, 다시금 십자가 아래 앞드려 목자의 지팡이를 쥐고 양 무리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겸손한 뒷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든, 제주 아틀리에에 공유교회, 아샵 하우스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 교회 “수많은 성도가 생계 잃어”

네팔 내무부 산하 국가긴급운영센터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라수와(Rasuwa) 지역에서 시작된 보테 코시(Bhote Koshi) 강의 참혹한 범람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65명에 달하며, 82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네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습된 시신들은 재난 지역 하류의 여러 지역에 걸쳐 발견됐다. 치트완(Chitwan)에서 가장 많은 65구가 수습됐으며, 다딩(Dhading) 27구, 나왈파라시 동부 26구, 고르카(Gorkha) 20구, 누와코트(Nuwakot) 12구, 타나훈(Tanahun) 9구, 나왈파라시 서부 5구, 라수와 2구 순이었다.

군경 인력 85명에 대한 수색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네팔 육군 44명, 네팔 경찰 28명, 무장경찰대 13명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라수와와 누와코트 지역 주민 162명의

생사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재난으로 외국인 466명과 네팔 현지인 113명을 포함한 579명의 관광객과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당국은 피해 지역에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라수와, 누와코트, 다딩 지역을 중심으로 104명이 구조됐다. 구조대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카트만두에서는 구호 및 구조 활동을 조율하기 위한 전 정당 회의가 열렸다.

국제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는 “이번 홍수로 보테 코시 1강과 트리술리(Trisula) 강 유역을 따라 도로와 다리, 주거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처참하게 파괴되면서 피해 지역으로의 접근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네팔 내무부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만큼 공식

적으로 확인된 정보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옴에 따라 사상자 집계는 변동될 수 있다.

피해 입은 현지 기독교 공동체 소식

트리술리 바자르(Trishuli Bazar) 라수와 지역을 덮친 홍수는 트리술리 강 유역의 마을들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다리를 무너뜨

리고 인명 피해와 생계 파탄을 초래했다. 트리술리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의 7가정이 피해를 보았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취함된 소식에 따르면, 라수와 지역 내 5개 교회에서 성도 17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다. 현지 사역자는 강변에 살던 여러 성도 가정이 수해를 입었으며, 수력발전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하던 성도 20~25명 가량이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다.

현지 교회의 존(가명) 담임목사는 이뿐 아니라 수많은 성도가 일자리와 수입원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전했다. 피해 성도 대다수는 수력발전소 공사, 터널 굴착, 하천 정비, 국경 무역 관련 일용직 노동에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오픈도어는 “참혹한 홍수로 깊은 슬픔에 잠긴 네팔 전역을 위해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통함 속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임하고, 구조와 구호에 나선 이들의 안전이 지켜지며, 피해 가정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채워져 이 땅의 상처 입은 공동체들이 치유와 소망을 되찾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미셀 기자



“사역자는 있는데, 사역할 차량이 없습니다”

†
당신의 차량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교회, 선교지, 캠퍼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사역자를 연결합니다
예배자,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의 자리로 연결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국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믿음을 남깁니다
후대에 남겨질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당신의 차량기부가
복음의 여정이 됩니다!

납아도, 오래되어도 괜찮습니다.
운행이 어려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선교지 이동



캠퍼스·청소년 사역



지역사회 섬김



교회 및 기관 사역



차량도네이션

문의 및 신청

☎ 213-434-1170

chdailya@gmail.com

주관: 기독일보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英 생명 수호 행진에 수천 명 집결 “모든 인간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MarchforLife/Facebook

수천 명의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최근 영국 런던에 모여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연례 행사인 ‘영국 생명 존중 행진(March for Life UK)’은 웨스트민스터의 에마뮬엘 센터에서 출발해 국회의사당 앞까지 이어졌다. 올해 행사에는 가톨릭 주교 15명도 참석해 생명 보호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행진에 앞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는 낙태 옹호 시위대가 미사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위대는 미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당 안으로 들어와 항의했으며, 이들을 건물 밖으로 퇴거시킨 이후 미사는 평화롭게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에 참석했던 1주교들은 이후 생명 존중 행진에 합류했다. 이번 행사는 영국에서 낙태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이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열렸다.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낙태가 이른바 ‘이미 해결된 문제’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낙태 관련 법률을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면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노동당의 토니아 안토니아치 의원이 범죄 및 경찰법 개정안에 낙태한 여성에 대한 형사 처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수정안은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낙태와 관련해 여성 본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크게 제한됐다. 다만 의료진의 낙태 시술

에는 기존의 법적 제한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임신 24주까지 일정한 요건 아래 낙태가 허용되며, 24주 이후에는 법이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생명 옹호 진영은 이러한 법 개정이 낙태에 대한 법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영국과 북아일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낙태 관련 시설 주변에 이른바 ‘완충구역’(buffer zone)을 설정해 시위와 특정 형태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옹호 단체들은 이 같은 규제가 낙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거나 기도·설교하는 행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올해 초 북아일랜드에서는 한 목회자가 낙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야외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낙태 시설 주변 완충구역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논란이 됐다.

행진 주최자인 벤 태처(Ben Thatcher)는 EW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낙태는 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이며, 낙태로 인해 생명이 끝날 때 우리는 엄청난 비극을 목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지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미얀마 군부, 침례교 목회자 살해

미얀마 친주에서 25년 넘게 교회를 섬겨온 침례교 목회자가 군부에 의해 살해됐다고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들이 밝혔다.

국제기독교인권단체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ICC)에 따르면, 미얀마 친주에서 활동하던 윌리엄 목사와 친족 출신 기독교인 남체우(Nam Ceu)가 지난 6월 4일 미얀마 군부에 의해 살해됐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군부에 체포돼 구금돼 있었으며, 군부는 이들이 군정에 맞서 싸우는 무장단체인 하카 친랜드 방위군(Hakha Chinland Defense Force)을 지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전국적인 내전에 휩싸여 있다. 당시 군부는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이끄는 정당이 총선에서 2회 연속 승리한 뒤 정권을 장악했다.

군부의 정권 장악으로 기존에 정부군과 국경 지역의 자치권을 요구해 온 소수민족 무장단체 간 수십 년간의 갈등이 전국적인 전쟁으로 확대됐다. 이후 민주화 저항세력들이 기존 소수민족 무장세력과 연대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기독교인이 다수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메릴랜드에 본부를 둔 버마연구소에 따르면, 윌리엄 목사는 지난 6월 4일 살해됐으며, 그의 장례예배는 지난 8월 26일 친주의 충충(Chungchung)에서 열렸다.

윌리엄 목사가 섬기던 충충침례교회(Chungchung Baptist Church)는 2021년 10월 군부에 의해 약탈당한 뒤 불태워졌다. 교회가 위치한 마을 역시 같은 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반복적인 무장 습격을 받아왔다. 당시 이 마을에는 약 300가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목사는 아내와 다섯 자

녀를 남겼다.

버마연구소 이사장이자 미국침례교회(ABCUSA) 전 부총무인 스톱스 목사는 성명을 통해 “유가족과 그의 교회,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눈다”며 “그러나 슬픔은 행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내전은 친주를 비롯해 카야주, 카친주, 카렌주, 산주 일부 지역에서 공습과 포격, 대규모 강제이주, 인도적 지원 중단 등을 초래했다. 이 지역에는 약 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군부에 의한 종교시설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3월에는 카친주에서 군인들이 성 패트릭 대성당(St. Patrick’s Cathedral)을 불태워 전소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성당에서는 성 패트릭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앞서 2025년 2월 26일에는 군인들이 성당 부지 내 학교와 사제 관저, 교구 사무실 등을 파괴했으며, 같은 해 2월 6일에는 친주 민닷(Mindat)의 성심교회(Sacred Heart Church)가 공습으로 파괴됐다. 3월 3일에는 카친주 반마우교구에 속한 성 미카엘 가톨릭교회(St. Michael’s Catholic Church)의 사목센터도 공습으로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교회와 불교 사원 등 종교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소수민족 저항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저항세력은 최근 수백 곳의 군부 초소를 장악했으며, 미얀마군 내부에서는 탈영과 항복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부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Ed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예배 2부: 11:00 am
교육부서: 11:00 am

주일 3부: 2:00 pm(영어편)
새벽예배: 화-토(6:00 am)
수요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문해로 걸아온 50년, 비전으로 걸아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금요일에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여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방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종부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세브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저녁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절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일에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토요새벽예배 E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 6:30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주일2부예배 새벽기도 (화-금) (토) 오전 6:30

오전 8:00 오전 10:30 오전 5:30

곽범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셔(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주일학교 수요성경공부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후 7:30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욱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주일 2부예배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새벽예배

오전 8:00 오전 11:00 오전 11:00 오후 7:30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500-9791 / evergreenhill.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금요일 저녁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토요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십시오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월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3주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아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보아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청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월-토)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보기도회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아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평일) 새벽 5:30
(청년/교육부세)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lchurch.com

주일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유차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평일 유차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참성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메인주 대법 “어머니의 신앙 교육 제한” ... 종교 자유 논란 확산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이 미국 메인주이다. ©위키피디아

미국 메인주 대법원이 부모 간 종교적 갈등을 이유로 아버지에게 13세 딸의 종교 관련 의사결정권을 부여한 양육권 명령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어머니 측은 이번 결정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부모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침해한 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CBN뉴스에 따르면, 에밀리 비크포드는 2024년 12월 내려진 양육권 명령에 따라 딸 에이바를 메인주 포틀랜드의 켈버리 체플에 데려가는 것이 금지됐다. 또한 딸에게 성경이나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것도 제한받았다.

비크포드는 에이바의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았으며, 비크포드가 주된 양육권을 갖고 아버지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바는 약 3년간 켈버리 체플에 출석한 뒤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고,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린 이후 갈등이 발생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하급심은 비크포드가 적합한 부모이며 성경에 뿌리를 둔 신앙 자체가 딸에게 해롭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딸이 교회에서 접한 일부 가르침과

부모 간 종교적 갈등이 딸의 정서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문제로 삼았다.

이번 사건은 부모 간 종교적 갈등이 자녀의 정서적 복지와 충돌할 경우, 법원이 자녀 보호를 이유로 부모의 종교적 의사결정권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크포드를 대리하는 종교 자유 전문 법률단체 리버티카운슬은 “이번 판결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와 ‘부모의 신앙에 따른 자녀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리버티카운슬의 맷 스테이버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적절한 부모가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와 관련한 다른 주 법원의 양육권 판결 및 미국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충돌한다”며 “미국 대법원이 사건을 직접 심리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밝혔다.

리버티카운슬은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진 김 기자

독일 주류 교회 쇠퇴 속 복음주의 성장



▲독일의 한 복음주의 개신교회 예배. ©에반젤리컬 포커스 캡처

독일의 국가 공인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장기간 교인 감소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유복음주의교회연맹(Bund Freier evangelischer Gemeinden·FeG)에서는 침례와 신앙 결단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독일 기독교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류 교회의 지속적인 쇠퇴와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Christian Daily International)이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FeG는 지난해 말 기준 독일 내 504개 회중과 4만933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연맹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침례 증가였다. 신앙고백에 따라 침례를 받은 인원은 2021년 1,491명에서 지난해 2,624명으로 4년 사이 약 76% 늘었다. 같은 기간 침례식 횟수도 554회에서 822회로 증가했다.

다만 비교 기준인 2021년은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예배와 모임, 침례식 등이 크게 제한됐던 시기인 만큼, 증가 폭에는 팬데믹 이후의 회복 효과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나타난 신앙 결단의 증가세는 단순한 예배 정상화 이상의 흐름으로 읽힌다. 연맹은 이 기간 소속 교회들이 약 2,700건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결단”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1년까지는 통상 2,000건을 밑돌았고 2023년에는 약 2,400건이

었다.

FeG는 유아세례가 아닌 개인의 신앙 고백에 따른 침례를 시행하고 있어, 유아세례까지 포함하는 독일의 전통적 개신교 지역교회 통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연맹 상무이사 귀도 자들러(Guido Sadler)는 “이 수치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안겨준다”며 “처음이든 다시금이든 하나님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침례에서 드러나는 흐름이 큰 격려가 된다”고 밝혔다.

예배 출석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다. FeG는 예배 참석을 회원 대비 출석 비율로 집계하는데, 이 비율은 2021년 62%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부터 회복돼 지난해 말 92%에 이르렀다.

2024년부터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헨리크 오토(Henrik Otto)는 “코로나로 인한 침례를 극복해 기쁘고 감사하다”면서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 안주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FeG는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교회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비회원 교우들도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감소했던 정식 회원 수도 최근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개척 역시 연맹이 주목하는 흐름이다. 자유복음주의 회중의 평균 규모는 지난 6년간 84명에서 81명 정도로 줄었지만, 연맹은 이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실 교회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설명했다.

유진 김 기자

“기독교 단체 지도자는 기독교인이야” ... 美 대학 상대로 소송 제기



IVF 소속 학생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다.©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USA

미국의 대학생 선교단체인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이 기독교인 학생들만 단체 지도자로 인정하도록 한 방침을 문제 삼은 뉴욕주립대 브룸커뮤니티 칼리지(SUNY Broome Community Colleg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IVF의 SUNY 브룸 지부는 대학 측이 비기독교인도 공식 학생 동아리의 지도자로 인정하도록 요구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 8월 21일 뉴욕 북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IVF는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모임을 개방하고 있지만, 지도자직은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SUNY 브룸 측은 실천적 기독교인에게만 지도자직을 허용하는 것이 대학의 차별금지 정책에 위배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IVF 학생단체의 공식 동아리 등록을 거부했다.

소장에 따르면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을 경우 학생들은 모임 공간과 신입회원 모집 기회, 재정 지원 및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IVF 브룸 회원인 제이크 소너는 성명을 통해 “IVF는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며 평생 지속될 우정을 쌓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며 “모든 학생을 환영한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고 밝

혔다. 이어 “다만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인도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도록 돕는 신앙을 실제로 공유해야 한다”며 “공립대학이 이런 이유로 우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IVF를 대리하는 종교 자유 전문 공익법률기관 벡킷 펀드(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는 SUNY 브룸의 조치가 IVF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지난 15년 동안 연방대법원은 종교단체가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 지도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인정해 왔다”며 “SUNY 브룸의 조치는 IVF의 운영과 신앙,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에 개입하고 이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종교단체의 혜택 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세 차례에 걸쳐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벡킷 측 변호사이자 IVF 사건의 수석 변호사인 콜튼 스태퍼리는 “IVF에 기독교인 지도자를 둘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양키스 팬클럽에 레드삭스 팬을 회장으로 세우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말이 되지 않으며 뉴욕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정헌법 제1조는 공립대학이 종교 선교단체의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탄자니아 잔지바르 기독교 박해 지속 해안가 교회 대상 습격 잇따라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반자치 제도인 잔지바르를 비롯한 해안가 일대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과 교회 습격이 잇따르고 있다고 9월 1일 보도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 기구인 국제기독교연대(ICC)는 지난 8월 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이들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잦은 위협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겪는 피해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신앙생활 자체를 위축시키는 광범위한 사회적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탄자니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지 인권 단체들은 무슬림 다수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실질적인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선교 단체 오픈도어즈가 발표한 2025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잔지바르와 탄자니아 해안 지역의 교회들은 예배당 안에서조차 기독교 활동을 조직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 펌바와 웅구자 등 탄자니아 전역에서 최소 10개의 교회가 방화나 기물 파손 등의 물리적 공격을 받았으며, 1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부당한 행정 규제도 주요 핍박 사례로 지목된다. 세계기독교연대(CSW)의 2025년 11월 브리핑에 따르면 잔지바르의 기독교인들은 예배당 건립 현지 무슬림 지역사회의 동의 강요받고 있다.

행정 당국의 등록 절차 지연으로 교회

가 불법 운영 혐의를 받거나 합법적 허가를 얻은 후에도 소송에 휘말려 재판이 연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 발생한 물리적 습격 사건들은 현지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CSW는 지난 2020년 2월 음람보니 지역의 갈보리 선교 교회가 무장 폭도들에게 습격당해 필레몬 마필리리 목사 부부가 심각한 폭행을 당한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범행 전 한 지역 공무원은 마필리리 목사에게 무슬림 지역사회가 교회를 원하지 않으니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지역 사회의 핍박과 더불어 사법 당국의 방관을 비판하고 있다. 국제기독교연대의 2022년 보고서에서 가명을 사용한 데릭 주교는 종교적 폭력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슬림 사법 공무원들의 편향된 태도가 평등한 종교적 재판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담 목사 역시 정부가 개입해 모든 종교가 보호받는 법적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앙을 바꾼 개종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척도 심각한 수준이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극심한 괴롭힘과 협박에 직면하며, 이들을 수용하는 교회 또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오픈도어즈와 CSW 등 국제 인권 단체들은 탄자니아 정부가 무슬림 다수 해안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독교 박해를 근절하고 헌법이 명시한 종교의 자유 보호 조치를 일관되게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마지막주) 오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 (화-금)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박종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e,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r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dchurch.com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KM 주일예배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3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8:00 AM 수요경배와찬양 (수) 7:30 PM
주일 2부 9:30 AM (각 교육부 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AM
주일 3부 11:20 AM (각 교육부 예배) (토) 6:00 AM
한어찬양부 1:30 PM / 영어대향부 2:00 PM
EM(dscp) 1부 9:30 PM / 2부 11:00 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성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종교동부 (Youth)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유아, 유치부 오전 11:00
초,중,고등부 오후 11:00

이종천 담임목사

나침판교회
“사랑으로 하나되고 은혜로 세워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213) 999-9298 www.nachimban.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날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나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종교동부(이가족들)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민족제출)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종교동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교육아노인(월-토)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mi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n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오전 5:30 / 토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흥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동요로운 삶 오전 9:30
최오 3,3,3 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10:30 목요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u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인어)
교육부예배 3부 오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e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즐거운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천 담임목사

라스베가스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jeunchurch.com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웅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mrkpc.net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주일 오전 1: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1:30

홍경현 담임목사

헨더슨주사랑장로교회

2 S. Pecos Rd, Henderson, NV 89074
T. (702)304-0324 / http://hendersonk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 생 모 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배에는 숙변제거와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연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마음이 편해지는 장례플랜

장례 플랜 (화장, 매장)

Worldwide FAMILY INC.

Representing Family Owned & Operated Funeral Homes

1 물가 상승 대비 장례 비용 고정

2 사망 시 신속한 장례 절차 진행

3 원하는 화장 또는 매장 방식 설정

4 부담 없는 장례 요금 할부 계획

5 만성 질환, 정부 혜택 수혜자도 가입

이한주 장례전문 상담사 CA Lic. #0K41143 213.321.878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오렌지힐, 뱅가드 콰이어 초청 음악회

오렌지힐교회(백창호 목사)가 오는 9월 27일(주일) 오후 2시 30분, 뱅가드대학교(Vanguard University) 콘서트 콰이어를 초청해 'I Will Follow Him'을 주제로 초청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뱅가드대학교 학생들이 한인 이민교회를 찾아, 음악을 통해 서로의 문화와 신앙을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리랑'을 찬양으로 편곡한 '찬양의 아리랑', 'I Sing the Mighty Power of God', 'Total Praise',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등을 선보인다.

오렌지힐 교회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언어와 세대,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지역사회와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다.

음악회 일정

9월 27일 오후 2: 30

주소: 오렌지힐 교회 681 N. Rancho Santiago, Orange, CA 92869

문의: 714-633-3104. 김민선 기자

오렌지힐 콰이어와 함께하는 뱅가드대학 콘서트 콰이어 초청 음악회

I Will Follow Him

찬양의 아리랑 편곡: Jae Hyeok Jang

I Sing the Mighty Power of God 편곡: Camp Kirkland

Total Praise 편곡: Dave Williamson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지휘 장 재혁 뱅가드대학 콰이어 반주: 이정욱

지휘 변혜자 오렌지힐 콰이어 반주: 양홍혜

일시 2026년 9월 27일 (주일) 오후 2:30 PM

장소 오렌지힐교회 681 N Rancho Santiago Orange, CA 92869

주최 / 문의 바울/드보라 선교회 714-633-3104

오렌지힐교회 (PCA) 백창호 목사

www.OrangeHillChurch.com

LA 베이직교회 이전 감사예배 13일

LA 베이직 감리교회(이선기 목사)가 오는 9월 13일(주일) 오후 4시 새 예배당에서 이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새 예배당은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 3400번지(34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에 위치해 있다.

LA베이직교회는 LA연합감리교회와 월서연합감리교회 소속이었던 한인 성도들이 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의 반성경적 정책, 동성애 합법화 흐름에 반대하여 이선기 목사를 초대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2024년 개척한 교회이다.

김민선 기자

간미연 & 황바울 부부와 함께하는 밀알의밤

'2026 밀알의밤'이 '따뜻한 동행'(전도서 4:9~12)이란 주제로,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멤버이자 현재 뮤지컬 배우와 교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간미연' 집사와 남편 '황바울' 집사를 메인게스트로 초청해, 이들 부부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밀알의 밤은 10월 9일(금) 오후 7시30분 토랜스조은교회, 10월 11일(주일) 오후 6시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리며 티켓은 20불이다. 티켓은 중앙일보 핫딜 사이트(<https://m.hotdeal.koreadaily.com>)에서 '2026 밀알의밤' 검색하거나 밀알의밤 행사 당일 공연하는 교회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문의: 562-229-0001, Email: admin@milalsca.org

김민선 기자

남가주 소식

▶ 임동선 목사 기념 창작 뮤지컬 동양선교교회 설립자 고 임동선 목사의 선교 정신을 잇는 뮤지컬 드라마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 오는 19일 오후 6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무대에 오른다.

일시: 9월 19일(토) 오후 6시

장소: 남가주 새누리교회

▶ 주영훈 집사 초청 간증집회 주영훈 집사 초청 간증집회가 열린다.

엘바인온누리교회 9/13 주일 오전 9:15, 11:30

감사함인교회 9/18 금 오후 7:30

동양선교교회 9/20 주일 1:30

▶ Youth KOSTA Irvine 2026 Youth KOSTA Irvine이 오는 9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엘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일시: 9월 18일(금)-20일(주일)

장소: Irvine Onnuri Church

▶ F.I.A 워십 집회 피아워십이 미 서부에서 집회를 연다.

9/11(금) 오후 7시 30분 주님의 영광교회

9/12(토) 오후 6시 토랜스제일장로교회

9/13(주일) 오후 6시 샌디에이고 갈보리장로교회

▶ 나성영락교회 '2026 MISSION EXPO'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가

9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미션 엑스포'를 개최한다.

11일 오전 특강은 이세영 교수가 인도하며, 오후에는 북미 및 중남미 권역 선교보고, 저녁 집회는 박은성 담임 목사가 인도한다.

▶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의 밤 오네시모 선교회의 제23회 후원의 밤 행사가 9월 12일(토) 오후 6시, 부에나팍 시니어 센터(Ehlers Event Center Heritage Hall)에서 개최된다.

재소자들의 영상 편지를 비롯해 후원회 회원들의 영상 메시지가 소개된다. 메조 소프라노 정희숙, 바리톤 장상근, 색소폰 폴최, 기타와 키보드의 유니스 및 앤드류 리 씨 등이 공연한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전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전적 상담 213-798-22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Show Room

제 4기

성경필사 장학생 모집

말씀을 쓰다, 믿음을 새기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며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며,
가슴 깊이 새겨진 구절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35명
선발

1인당 장학금
\$1,000

지난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
었습니다.”

성경필사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본문 (한글, 영문 중 선택 가능)
응모대상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나이 만 14세~25세)
신청방법	QR 코드 스캔 후 신청
신청마감	2026년 11월 6일 (토)까지
장학생 선정발표	2026년 11월 13일 (토) 개별통보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2026년 11월 20일(토) 오전 10:30 LA 장로교회 (한현중 담임목사)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장학금 전달식	2027년 7월 중 (장학생들에게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알려 드림)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chdailyreporter@gmail.com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신청 QR 코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주최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주관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신성욱 칼럼

영화 《오디세우스》 감상 후기



신 성 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며칠 전, 방송에 자주 나오는 친구가 《오디세우스》(The Odyssey) 영화 봤냐고 물은 적이 있다. 아직 못 봤는데 곧 보러 갈 거라니까 빨리 보고 글 좀 쓰라고 하는 것이었다.

대학 시절 영문학을 전공할 때 읽어본 이후 세월이 많이 지났기에 줄거리 외엔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아서 ‘오디세우스에 관한 영상’을 몇 개 보고 영화관으로 갔다. 관람을 통해 느낀 영화의 장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를 바탕으로 인간의 욕망, 유혹, 고난, 귀환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룬다. 강한 모험심을 가진 오디세우스와 일행이 거센 바다와 무시무시한 괴물, 세이렌의 유혹과 죽음의 위기를 가까스로 통과하는 과정이 스킬 넘치게 펼쳐진다. 용기뿐 아니라 교만, 두려움, 음모, 지혜, 절제와 같은 인간이 지닌 양면적 본성을 리얼하게 잘 그리고 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정으로 돌아가는 ‘귀환’이라

는 여정이 따뜻함을 준다.

장장 3시간에 걸친 상영 내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제우스의 베품’이라는 단어 말이다. 이것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제우스가 나그네와 손님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다”라는 사고이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이것을 ‘ξενία’(xenia), 곧 ‘손님 환대’(Hospitality)라고 불렀다.

이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나그네 보호 사상’과 흡사하다. 구약의 나그네 보호 규정은 다음 성경 구절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출 22:21). “나그네를 자기 같이 사랑하라”(레 19:33-34).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시므로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신 10:18-19). “나그네의 권리를 보호하라”(신 24:17-22).

두 사상과 규정이 동일해보이나 차이가 있다. 그리스의 논리는 “나그네를 잘 대하라. 제우스가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인 반면, 성경의 논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나그네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이다. 그리스의 사상은 나그네가 제우스의 손님이기에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성경의 규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대로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

기는 이 사상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다. 당시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낯선 세 사람을 발견한다. 그들을 본 그는 달려가서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게 하고 떡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아 대접한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이들은 단순히 ‘여행객’이 아니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장면은 히브리서 13:2와 연결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환대에는 아주 강력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다. “내가 만나는 낯선 사람이 하나님일지 천사일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이유에서 그리스의 논리와 성경의 논리는 크게 다를 수 있다. 그리스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언젠가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 반면, 성경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논리이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 그러므로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즉, “받은 은혜 → 기억 → 환대”라는 구조이다. 이 구조와 흐름을 생각하다 보니 본

문 하나가 금방 떠올랐다. 지난 며칠간, 눅 17:11-19에 나오는 ‘열 명의 한센씨병 환자들’에 관한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오디세우스》영화를 관람한 후 설교문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을 더 첨가하게 되었다. 《오디세우스》에서는 환대받을 나그네가 도움 줄 사람의 집으로 찾아간다.

하지만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버림받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전이다. 기독교만의 독특성과 차별성이다.

영화 《오디세우스》의 마지막 장면에는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를 만나 자신이 ‘제우스의 베품’을 깨뜨린 장본인임을 고백하며 후회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 결과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두 사람은 해가 지는 먼 곳으로 떠나간다. 이것은 ‘제우스의 베품’이 잘 지켜지는 새로운 시대가 아들 ‘텔레마코스’를 통해 희망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는 오디세우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이 영화의 가장 소중한 엔딩 장면으로 평가된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한센씨병 환자들처럼 우리의 보호와 사랑을 기대하는 이들이 주변에 아직도 많다. 찾아오는 나그네나 이웃 대접도 잘 못하는 우리인데, 한센씨병 환자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가서 도움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강태광 칼럼

바나바를 배우자!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인생 80을 하루로 계산하면 1년은 18분이고, 60세가 되면 저녁 6시란다. 그러니까 내 시간표는 귀가를 서둘러야 할 저녁 시간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숙고하다 생각해 낸 사람이 바나바다. 바울을 돕고, 바울을 사역자로 세운 바나바를 배우고 싶다. 성향, 믿음, 인격 그리고 경륜이 바나바를 배우고 닦기에는 너무 멀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사도행전 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나바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24회(4장, 9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정도 등장한다. 또 바나바는 바울 서신서에 5회(갈2:1,9,13, 고전9:6, 골4:10) 등장한다. 바나바는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초대교회 선교 역사 그리고 바울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바나바의 성경에 첫 등장은 자기 발을 팔아 사도들에게 맡기는 장면이다. 초대교회에서 귀한 나눔을 실천했던 인물이다. 본명은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인데 권위자(위로자/man of encouragement)란 뜻이다. 사도행전은 일관되게 격려하고 섬기는 바나바를 그리고 있다.

바나바를 깊게 연구한 사람들은 바나바에 대한 새로운 조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바나바의 삶과 사역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밖의 자료에서 풍성하다. 콜맨(Kollman)과 밴던(Van Deun)은 교회 전승에서 나타난 바나바를 전하는데 가말리엘 문하생이었던 바나바는 동문 후배 바울보다 20세 연장자

로 소개한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바나바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유세비우스는 바나바가 예수님 70문도 중의 하나였다고 주장한다.

터툴리안은 바나바가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주장했고, 코니베어와 하우슨 등도 히브리서 저자가 바나바라고 주장한다.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사랑했으나 유대인 손에 순교했다. 밴던에 의하면 55년경 구브로로 돌아온 바나바가 구브로 살라미스에서 유대인의 돌아 맞아 순교했다. 믿음의 사람 바나바는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복음화를 도모하다 순교한 듯하다.

바나바 고향 구브로 살라미스에 바나바 기념 수도원이 있다. 이 수도원에는 바나바의 마지막 삶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전한다고 한다. “구브로 태생의 바나바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인 70인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 후 바나바는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로 선교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구브로에 다시 돌아와 유대인의 돌에 맞아 순교했다. 마가는 아무도 모

르게 그의 시신을 살라미 교외에 있는 바위 절벽으로 박혀 있는 빈 무덤에 안장했다.” 그가 안장된 곳에 기념 수도원이 자리 잡았다.

사도행전에 바나바는 바울의 후견인과 안내자 역할을 한다. 먼저 9장 27절에서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갔다. 또 11장 25절에 안디옥교회에서 목회자 바나바가 다소에 머물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공동으로 목회했다. 바울을 사역자로 우뚝 서게 한 사람이 바나바다. 돕고 섬기는 바나바가 그림다.

바나바는 예루살렘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다. 그의 누이였던 마가의 어머니는 대형 다락방을 기도처로 내주었던 부자였고, 자신도 상당한 재물을 쾌척했던 재력가였다. 그는 또 안디옥교회에서도 강력한 지도력을 갖췄고, 그 영향력으로 바울을 세웠다. 새까만 후배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따르던 바나바의 넓은 가슴과 안목을 배우기를 기도한다.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찬양으로 섬긴 20여 년, 이제 ‘예배 공동체’로… 더라이프장로교회 확장 준비

5개월간 아내와 둘이 예배, 한 사람씩 찾아오며 여성도·남편·가정까지 회복 “내가 하려던 것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사람 보내서” 예배처 확장도 준비

창립 2년 6개월을 맞은 뉴욕 더라이프장로교회(담임 유태웅 목사)가 새로운 예배처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개척 초기 5개월 넘게 주일예배 참석자가 유 목사와 아내 단둘뿐이었던 교회였지만 이후 한 사람이 찾아오고 또 한 사람이 더해졌다. 신앙과 가정의 어려움을 안고 온 여성들이 먼저 예배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거나 주일을 지키지 못했던 남편들도 하나둘 예배 자리로 돌아왔다. 첫돌 당시 10명의 성도를 놓고 기도했던 공동체는 이제 현재 공간이 비좁아 새로운 예배처를 찾아야 할 단계까지 왔다.

더라이프장로교회의 지난 2년 6개월은 단순히 성도 수가 늘어난 과정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예배자 한 사람’을 세워 온 시간에 가깝다. 사람을 모으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성장 전략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방향이 됐다. 유목사는 “우리가 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찾아왔다”며 “내가 하려던 것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고, 지금 돌아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고 말했다.

20여 년 찬양사역 지나 붙든 ‘지성소 예배’

유목사는 뉴욕에서 20여 년 동안 찬양과 문화사역으로 한인교회들을 섬겨왔다. 라이프라인미션과 YP3 등을 통해 찬양집회와 문화사역을 펼쳤고, 오케스트라와 찬양팀, 드라마팀 등을 함께 운영할 당시에는 전체 참여 인원이 70~80명을 넘기도 했다. 찬양사역에만 머문 것은 아니었다. 교회가 선교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교회에서 청빙을 받거나 부서를 맡으며 목회 현장에도 계속 들어갔다.

그러나 사역이 자리를 잡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즈음 뜻하지 않게 다시 사역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유목사는 비슷한 경험을 네 차례 겪었다고 했다. 당시에는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결국 교회 목회를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찬양과 선교사역에만 집중하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회의 계획과 힘을 내려놓는 훈련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유목사는 “교회를 맡게 되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많은 생각들을 했었다”며 “여러 과정을 지나면서 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모으고 사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빠진 자리에 ‘한 사람의 예배’를 바라

보는 목회가 들어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붙든 것이 ‘지성소 예배’였다. 오랫동안 찬양을 인도해 온 유 목사에게 찬양은 단순히 좋은 음악을 들려주거나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수단이 아니었다. 예배자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돕는 통로였다. 여러 교회와 집회에서 지성소 예배를 인도하며 타주와 해외로 사역을 넓혀갔지만, 정작 유 목사 자신이 그 의미를 가장 깊이 경험한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가

드린 사람은 유 목사와 아내뿐이었다. 그렇다고 예배를 간단히 드리지 않았다.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듯 한 주간 말씀을 준비했고, 찬양과 기도, 말씀을 드린 뒤 둘이 식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눴다. 유 목사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고 우리 두 부부밖에 없는데도 정말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가를 경험했다”며 “둘이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실제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더라이프장로교회 담임 유태웅 목사 ©기독교일보

아니라 아내와 단둘이 예배했던 작은 공간에서였다.

현재 더라이프장로교회가 예배하는 곳은 유 목사 부부가 거주하는 집의 지하다. 처음에는 유 목사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형태의 예배 장소였다.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특히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성소 예배를 말하면서 자신이 정작 장소를 따지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됐다. 유목사는 “지성소 예배자로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데 집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려 했다”며 “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곳은 처음부터 교회로 마련된 공간도 아니었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옮길 장소가 필요해 찾게 된 집이었고, 지하에서는 한동안 주변 직장인들이 모이는 신우예배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이 직접 비용을 들여 공간을 꾸렸고 자연스럽게 예배와 교제의 장소가 됐다. 이후 이전 교회 사역을 마친 유 목사 부부는 다른 곳을 찾기보다 이 지하에서 둘이 주일예배를 시작했다.

그러나 교회를 시작했다고 사람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약 5개월 동안 매주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배를 많이 말했지만 아무도 없을 때 아내와 5개월 동안 드렸던 예배를 통해 그것을 내 삶으로 알게 됐다”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여 년 동안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사역자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 다시 세워진 셈이다.

둘에서 시작된 예배, 한 사람씩 세워진 공동체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다른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던 한 여성도가 지인의 소개로 예배에 참석했다. 유목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고 한 번 예배한 뒤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성도는 첫날 예배를 드린 뒤 계속 교회에 나오기로 했다. 둘이 드리던 예배가 세 사람의 예배가 됐다.

이어 스토니브룩에서 공부하던 바이올리니스트 청년이 찾아왔다. 당시 차량이 없었던 그는 기차를 타고 한 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를 오가며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했다. 기타를 연주하는 유 목사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청년이 함께 찬양하면서 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한층 풍성해졌다. 이 청년은 이후 약 2년 동안 먼 거리를 오가며 꾸준히 교회를 섬겼다. 유목사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더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전도든 예배든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됐다고 했다.

전도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무엇을 나눠주고 교회에 오라고 권하는 방식보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교회를 다니다 상처받은 적은 없는지, 현재 신앙생활은 어떤지, 가정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과정에서 신앙을 포기하다시피 했거나 부부 사이에서 깊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유목사는 “무엇을 강요하기보다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관계전도의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히 먼저 찾아온 이들은 남편과의 관계나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던 여성들이었다. 남편의 음주 문제나 오랜 신앙 단절 등으로 지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유목사는 이들에게 남편을 먼저 교회로 데려오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본인이 먼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남편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온 집사님과 권사님이 먼저 중요하다고 했다”며 “본인이 회복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줘도 변화가 쉽지 않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자고 했다”고 말했다.

여성도들은 약 6~7개월 동안 예배와 기도 에 집중했고, 매주 토요일에는 여성 중보기도모임도 이어졌다. 다섯 명 안팎이 모여 서로의 삶과 가정의 문제를 깊이 나누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5시간가량 계속되기도 했다. 유목사는 목회자가 모든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사모를 중심으로 여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했고, 이 시간이 가정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여성도들이 변화면서 남편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 가정의 남편은 직업 특성상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해 미국생활 25년 동안 제대로 주일을 지키지 못했다. 아내가 먼저 예배 안에서 회복된 뒤 그 역시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결국 예배를 위해 오랫동안 해온 일을 정리하고 주일예배뿐 아니라 수요성경공부와 금요일예배도 꾸준히 참여하기 시작했다. 약 10년 동안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았던 또 다른 남편도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와 기타를 배우며 교회를 섬기고 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의 확신 없이 출석만 이어가던 이가 말씀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변화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온 남편은 7명가량이었다. 유목사는 숫자보다 그 변화가 한 가정 전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봤다.

김대원 기자
[다음호에 이어서 계속]

이래도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을 아는 사람에게 대강 가입하시겠습니까?

데이터로 보는 캘리포니아 보험

-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 회사(캐리어)는**
- 약 270~300여 개 사
- ✓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수**
- 생명보험 : 5~15개
- 개인은퇴연금 : 3~10개
- ✓ **한 상품당 선택할 수 있는 라이더(특약)의 수**
- 생명보험 : 보통 5~15개
- 개인은퇴연금 : 보통 3~8개
- ✓ **평균적으로 동시에 선택하는 라이더 수**
- 2~5개 정도
- ✓ **여러분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 할 수 있는 확률은?**
- “수십만 대 일~수천만 대 일”

-캘리포니아보험국 '2024 MARKET SHARE REPORT'-

“ 보험 선택은 수백만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기준으로 1~3개로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

여러 상품에 대해 알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gent 신정호 (Lic#4462712)

- Cell : 949-522-0778
- jeonghoshin@allmerits.com
- Office : 323-433-4000
- Fax : 888-870-0802
- 6281 Beach Blvd, Ste 116. Buena Park, CA 90621

A **아메리츠 파이낸셜**
ALLMERITS FINANCIAL
Your Partner in Financial Empower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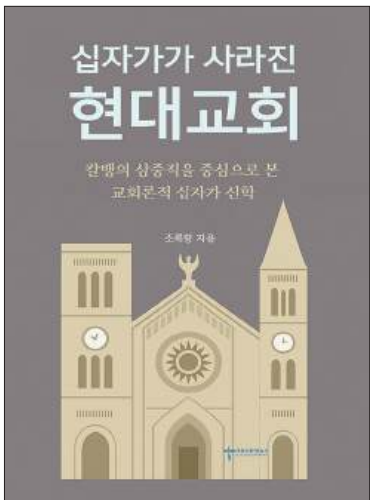
유튜브 채널
새비이코노미



에이전트 모집중 재정 전문가로 함께 성장할 인재를 찾습니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십자가가 사라진 현대교회』 조록형 목사

“고난 통한 영광, 복음의 본래적 역설로 돌아가야”



십자가가 사라진 현대교회:
칼뱅의 삼중직을 중심으로 본
교회론적 십자가 신학

조록형 | 크리스찬북뉴스
352쪽

현대 교회가
십자가 신학을
상실해 가는
현실을 직면하며,
그 원인을 변영신학의
왜곡된 세계관,
형벌 대속 중심으로
축소된 구원 이해,
교회론적
자기 성찰의
결여에서 찾는다

십자가는 교회의
생명임에도
세속적 성공과 성장 중심
담론에 밀려 복음의
역설이
흐려진 상황을
“십자가가 사라진 현대 교회”
라는
명제로 규정한다

최근 발간된 크리스찬북뉴스의 책 『십자가가 사라진 현대교회』 저자 조록형 목사와 크리스찬북뉴스 대표 채전석 목사가 책 내용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다음은 그 전문.

우선 스스로 밝히신 것처럼 뒤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시드니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이후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실 1970년대 말 고3 시절에 담임목사님께서 교단 신학교에 진학해 신학을 공부해보라고 권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특별한 소명의 확신이 없었기에, 계산통계학과에 진학했지요.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입사하면서 IT 분야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40여 년 동안 그 분야 전문가로 종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늘 영적 부담감과 부르심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아마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부르심의 씨앗을 심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시드니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일대일 제자양육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고 격려해 주셨고, 저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부르심에 순종해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호주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호주에 가시게 된 계기와, 지금 그곳에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요.

“1980년대 후반 금호그룹에서 IT 업무를 담당하던 중, 우연히 『호주로 가는 길』이라는 소책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호주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컴퓨터 기술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제게 특별한 비전이나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컴퓨터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민이 허락됐고, 시드니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일본계 회사인 후지쯔(Fujitsu)에 입사하게 됩니다. 또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에서 IT 분야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서른 살 남짓한 젊은 나이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며 좋은 성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 학문과 영광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저 역시 이제 세상의 업적을 지나가는 거품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현재 제 사역은 크게 학교와 교회 사역, 코이노크로스 선교훈련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 사역으로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알파크루시스대학교(Alphacrucis University College) 한국어 학부에서 조직신학 관련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 사역은 시드니에 있는 브릿지교회(Bridge Church)에서 협동목사로 섬기며, 매주 3부 예배 설교와 양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이노크로스(Koino-Cross) 선교훈련 사역은 하나님께서 최근 주신 비전으로 시작된 새로운 사역입니다. 또 선교사 후보생들을 발굴·훈련·파송하는 사역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코이노크로스’, 곧 십자가 공동체가 세상 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호주 알파크루시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Ph.D.)를 받고 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알파크루시스대학교는 호주 내 신학대학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조록형 목사의 강의 모습.

70년 역사를 가진 초교과 기독교 대학입니다. 현재 신학뿐 아니라 교육, 상담, 복지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장돼, 전문 신학대학에서 종합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에는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어 학부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약 350명의 한국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후 팬데믹 기간과 더불어 호주 정부의 유학생 쿼터 제한 정책으로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대학의 큰 자랑 중 하나는 호주 교육부로부터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최초의 대학이라는 점입니다. 박사과정은 영국식 제도를 따르고 있어, 코스워크 없이 약 8만 단어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철학박사(Ph.D.)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호주에서 한국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첫 번째 졸업생이 됐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학위 과정을 마친 후에도,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학습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을 보며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보다 깊이 있게 표현하고, 동시에 호주식 학문 체계에 따른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논문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호에 이어서 계속]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3



Those who are wise will shine
like the brightness of the heavens,
and those who lead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for ever and ever.
DANIEL 12:3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생일 특크 설렁탕

GOOD MORNING SPECIAL EVERYDAY 7AM ~ 10AM

표고우거지해장국 \$10⁹⁶+tax

48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통큰설렁탕 \$10⁹⁶+tax

북어국 \$10⁹⁶+tax

굿모닝스페셜

단/체/주/문 환영
주 7일 오픈 7AM ~ 10PM
(구)베버리순두부 자리
Uber Eats 대리배리 합니다.

(213)277-1339 | (213)263-9446
2717 W. Olympic Blvd. #108, Los Angeles, CA 90006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부서진 아름다움: 크리스천 예술의 적정률 (2)

십자가 상흔의 균열 사이 스며드는 구속의 빛

‘부서진 미’를 위한 변론 2: E. 존 월포드의 미술사적 관점

기독교 미학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술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과 씨름해 왔다. 미술사학자 E. 존 월포드(E. John Walford)는 서구 시각예술을 지배해 온 고전적 관념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서진 아름다움(Broken Beauty)’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제시한다(E. John Walford, “The Case for a Broken Beauty: An Art Historical Viewpoint”, in The Beauty of God, Theology and the Arts, IVP, 2007. 이하 페이지만 표시).

1. 고전적 관념론과 이상미의 한계 고전적 관념 바람직한 예술가 상상된 이상 표현 노력하는 자 푸생 ‘사비니 여인들의 납치’ 잔혹한 폭력도 철저히 이상화 악과 고통 정당화 환상 비판

서구 예술 이론과 실천의 기저에는 미(Beauty), 진리(Truth), 선(Goodness)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는 그리스적 개념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 이후, 지상적 물질보다 우월한 이상적 형상을 강조하는 신플라톤주의적 접근과 지상적 물질 내 질서를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접근은 기독교 신앙과 결합하여 예술적 지향점이 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 안에서 아름다움은 완벽한, 비율, 질서, 조화, 명료함으로 체현되며, 초월적 근원을 가리키는 지시체로 이해됐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종교개혁이 네덜란드 미술에 끼친 영향을 설득력 있게 논의하면서도, 신플라톤주의 유산의 연장선에서 “예술은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상기시키고 그것의 완벽한 미래의 광채를 예견하는 제작을 하는 신비로운 과업을 지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월포드는 카이퍼의 논리에 따르면서도, 동시에 관념론적 이상미(Ideal Beauty)의 한계를 지적한다. 예술가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창조계의 부서짐(brokenness)을 회피하고 이상적인 아름다움만을 불러내려 할 때, 그 결과물은 종종 ‘삶의 실체와 시련이 결여돼 있어 관람자의 공감을 얻는



▲니콜라 푸생, 사비니 여인들의 납치(1635),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데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타락으로 인해 부서져 있는데, ‘현실적 시련’은 이러한 세상의 고통, 상처, 불완전함 같은 가공되지 않은 거친 실재와 그 안에 담긴 거친 질감을 의미하며, 이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부서진 아름다움’의 핵심이다.

고전적 관념론에 입각한 아카데미 미술 이론은 바람직한 예술가를 “부서지고 타락한 세상의 특수성을 표현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상상된 이상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자(93쪽)”로 규정했다.

이러한 이상미를 우리는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푸생의 ‘사비니 여인들의 납치(1635)’는 전쟁과 강간, 약탈이라는 잔혹한 폭력을 묘사하면서도, 이를 영웅적인 신체와 수사적인 몸짓을 통해 철저히 이상화한다.

폭력의 비극적 진실은 제거되고 오직 시각적 균형과 형식적 아름다움만이 남겨진 것이다. 그렇기에 월포드는 “푸생이 불러내는 이러한 이상화된 형식의 미가 과연 그러한 주제에 적합하며, 그것이 진리를 가리키거나 선을 고취하거나 신성의 역량을 담고 있는가(95쪽)?”라고 반문하며, 악과 고통을 미적으로 정당화하는 관념론적 환상을 비판한다.

2. 인간 조건의 진실성 루이스달 ‘모래밭 위의 농가’ 쇠락한 육체 묘사 렘브란트 추함과 비애 우회·도피 아닌 ‘성육신적 미학’과 결 같이해 취약 인간에 임하시는 하나님

월포드가 분석했듯,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는 이상적 미에 대한 가정이 도전을 받았다. 네덜란드 화가들은 이상화된 아르카디아



▲아담 반 루이스달, 밀밭(1670년경), 캔버스에 유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를 추구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유인즉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은 피조세계 전반에 걸쳐, 즉 거친 바다로부터 저지대를 지켜주는 모래 언덕이나 바람에 휘날리는 곡식 밭에서도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은 세상을 “모든 피조물이 글자와 같아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게 해주는 아름다운 책”으로 보는 네덜란드 신앙고백(Netherlands Confession of Faith)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월포드는 신플라톤주의 전통의 대척점에서, 타락한 상태의 인류를 표현한 네덜란드 화가로 살로몬 반 루이스달(Salomon van Ruysdael)과 렘브란트(Rembrandt van Rijn)의 예술을 ‘부서진 아름다움(Broken Beauty)’의 전형으로 제시한다.

살로몬 반 루이스달의 ‘모래밭 위의 농가(1626-1628)’에서 주변

설정은 니콜라 푸생이나 클로드 로랭의 작품과 상충된다. 루이스달이 환기하는 세계는 이들의 장엄함과 이상주의와 대조적이다.

쓰러져가는 집과 펜스, 버려진 농기구, 길 떠나는 사람, 황량한 주위 풍경은 농부가 처한 처연한 현실을 보여주는데, 농부마저 의지가 꺾인 듯 모래밭에 풀썩 주저앉았다. 파스한 햇살만이 농부에게 살아갈 소망을 안겨줄 따름이다.

아담 반 루이스달(Jacob van Ruisdael)의 ‘밀밭(1670년경)’은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농부와 마중 나온 아내 및 아이들의 재회 장면을 묘사한다. 화면에는 추수가 끝난 웅장한 밀밭과 먼 밭치의 숲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 평화로운 전원 풍경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늘의 먹구름과 전경의 구덩이, 그리고 부러진 나무와 갈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신체적 노화, 그리고 필멸성을 미학적 승화의 도구로 삼는다.

렘브란트는 쇠락해가는 육체를 기록함으로써 관람자가 자신의 모습과 조우하게 만드는 실존적 진실에 도달했다. 예술의 가장 적절한 역할이 신성을 불러내기 위한 ‘이상(ideal)’의 표현인가, 아니면 인간 조건을 조명하기 위한 ‘실제(real)’의 다름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렘브란트는 철저히 후자를 추구했다(100쪽).

월포드가 주장한 ‘부서진 아름다움’은 피조 세계의 추함과 비애를 우회하여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칼 바르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삶뿐 아니라 죽음음, 기쁨뿐만 아니라 공포를,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추하다고 부르는 것까지 포용한다”고 선언했던 성육신적 미학과 결을 같이한다.

신플라톤주의 미학이 잃어버린 에덴을 향한 향수를 자극한다면, ‘부서진 아름다움’은 우리가 처한 어두운 세계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구속의 복음을 체현한다(100·109쪽)

월포드는 고통이라는 인간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임마누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희망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기독교 예술이 지향해야 할 구속적 미가 아로새겨져 있다고 규정하였다.

월포드는 미술사적 전통을 통해 취약한 인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변론했다. 그가 말하는 ‘부서진 아름다움’은 십자가 고난에 뿌리를 두되, 그 상흔의 균열 사이로 스며드는 구속의 빛을 가시화하는 작업이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솔로몬 반 루이스달, 모래밭 위의 농가(1626-1628), 패널에 유채.



선한목자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차기 담임목사 청빙 공고

(1년간 Co-Pastor/동사목사로 사역 후 담임목사로 취임)



선한목자교회는 LA 동부지역인 Chino Hills, California에 위치한 51년 역사의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복음언약장로교) 소속 교회입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품고 성장해 온 보수적 복음주의 공동체입니다.



담임목사님의 은퇴를 맞아,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에 맡기신 사명과 핵심가치를 계승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차기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청빙되신 목회자는 1년간 동사목사(Co-Pastor)로 현 담임목사와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의 목회 방향과 사역을 공유하고 동역하게 됩니다. 이후 교회의 목회와 사역을 이어받아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1. 자격 요건

- 이민교회 목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복음주의적 신학적 정체성을 가진 장로교 목사
- 미국 내 정규 신학대학원 M.Div. 과정을 이수하신 분
- 미주 지역에서 5년 이상의 Full-time 목회 경험에 있는 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경력)
- 본 교회의 비전과 핵심가치에 동의하고 함께 이루어가실 분
- 목회적 역량과 건강한 영적 리더십을 갖춘 분
- 미국 체류 및 사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ECO(복음언약장로교) 소속 목사 또는 ECO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한국어와 영어로 이중언어 목회 및 사역이 가능한 분



3. 제출 방법

- 제출 마감: 2026년 12월 31일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제출: resume@sunhanchurch.com (선한목자교회 청빙위원회 이메일)



2. 제출 서류

- 이력서(최근 본인 및 가족 사진 첨부)
- 목회자 자기소개서 및 목회철학
- 최근 설교 영상 2편 (YouTube 또는 Vimeo 링크)
- 신학대학원 학위증명서 및 목사 안수증 사본
-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인이 직접 청빙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4.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심사 후 면접 및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청빙위원회



위원장 정의태 장로



www.sunhanchurch.com



마가의다락방 공동체, 5천 성도 200개 교회로 파송

인천의 대형교회 중심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자체 주일예배를 중단하고, 5000여 명의 성도를 전국 방앗간 같은 작은 교회들로 흩어지게 하는 파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마가의다락방 공동체(마가의다락방교회·필그림교회·필그림선교교회·길튼교회·방주교회·아인교회)는 오는 9월 6일 주일 예배당 문을 닫고 ‘동행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속 6개 교회가 자체적으로 드리던 평소 형태의 주일예배를 전면 중단하고, 5000여 명에 달하는 성도들을 전국 200여 곳의 작은 교회로 분산 파송해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동체 관계자는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넓히는 시도”라며 “우리 예배당 하나가 비는 그 시간에 전국의 200개 예배당이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뿌리는 10년 전



마가의다락방교회 영적무장집회 당시 모습. ©기독일보DB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6년 당시 방주교회를 이끌던 박보영 목사는 대형교회에 성도들을 결집하는 대신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직접 찾아가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자는 취지로 연간 다섯 차례 ‘동행 프

로젝트’를 시도한 바 있다. 잊혀져 가던 이 상생의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은 다름 아닌 다음 세대였다. 지난 7월 이 공동체 청년부인 ‘ICC 청년 공동체’가 전국 100개 교회를 돌며 2박 3일간 아웃리치를 진

행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작은 교회들을 찾아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지켜본 교계 어른들과 성도들은 10년 전의 정신을 되살려 2026년 가을, 다시 한번 길을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체 측은 “청년들이 걸어간 길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깊은 울림을 받았다”며 “10년 전 함께 예배하고 세워가고자 했던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프로젝트가 시혜적인 차원의 ‘교회 돕기 행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도움을 주는 주체와 받는 주체를 엄격히 나누기보다, 서로 다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자리에 모여 오롯이 ‘함께 걷는 것’ 자체에 방점을 찍었다.

마가의다락방 공동체는 이번 파송을 일회성 이벤트로 매듭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례적인 주기를 마련해 성도들이 일상적으로 지역의 작은 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행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사역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우크라 방문, 北 포로 위한 인도주의 활동이었던 점 고려를”

외교부가 북한군 포로의 인도적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이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참작”을 호소했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대표 도희운)와 우크라이나북한군포로구출국민운동(공동대표 이용희)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방문단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과정을 최대한 이행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도적 인권활동을 위해 정부가 요구한 승인절차에 최선을 다했다”며 “사건의 공익적 목적과 예외적 여권사용 승인 신청 경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요청했다.

장세울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와 강동완 통일한국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 민간 방문단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를 찾아 북한군 포로를 위한 영치금 2,000달러(약 270만 원)와 국내 탈북민들이 직접 쓴 위문 편지 150여 통 등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

또 현지 당국 및 시민사회와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했으며, 포로들이 수용된 시설로 이동해 이들의 생명 보호와 자유를 위한 기도회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북한군포로구출국민운동

재 우크라이나 전역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돼 있어서 당국의 허가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이번 방문의 공익적·인도주의적 성격과 방문단이 예외적 여권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절차와 노력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요구한 예외적 여권사용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인적인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소관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인권활동으로 추진됐다”며 “방문의 목적은 우크라이

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비강제송환 원칙에 따른 인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의회·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와 협의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단은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 자유민주연맹, 국제인권옹호위원회 등 현지 시민사회와 장기간 협의하면서 공식 초청장, 방문일정, 현지 안전·경호대책 등을 준비하고 항공권과 국제 이동계획까지 마련한 뒤 2026년 3월 30일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했다”고 했다.

“그러나 신청 후 24일이 지난 4월 23일 외교부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추천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방문단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즉시 통일부 장관 명의의 추천서를 발급해 달라는 긴급 협조민원을 제출했으나 통일부의 최종 답변은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는 것”이었다는 것.

단체들에 따르면 이 같은 통일부의 답변은 방문단이 우크라이나로 출국을 사실상 하루 앞둔 5월 4일 오후 6시 9분경에야 이루어졌다.

통일부는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과 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우크라이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행금지국가라는 이유로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단체들은 “결국 방문단은 예외적 여권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정식 신청에서부터 외교부의 보완 요구에 따른 통일부 장관 추천 신청까지 민간단체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방문 목적이나 준비의 미비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추천서를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전쟁·분쟁지역에서 수행되는 인도적·인권활동의 경우 민간단체가 공식 초청과 안전대책을 갖추고 정부가 요구하는 절

차를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소관 행정기관이 해당 지역의 위험성 자체를 이유로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 민간 차원에서 예외적 여권사용 승인을 위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번 북한군 포로 인도적 보호활동에는 국내의 166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뜻을 모은 것”이라며 “그런 만큼 이번 고발과 수사는 방문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활동에 함께했던 시민사회에도 무거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국제 인권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인권활동가들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국제적 인권연대와 민간외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방문의 전체 경위와 공익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인권과 정의를 위해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 행동한 시민사회의 헌신이 폄하되거나 범죄화되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문선영의 머니토크

YouTube

앞으로 30년을 함께 할 재정전문가 | Financial Professional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9월의 세미나”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부터 자산관리와 재정계획까지, 앞으로 30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재정 파트너, 문선영의 머니토크

세미나 문의 ☎ 626-827-9599

14일

9월 14일 (월) · 7pm
자녀가 해결 못하는 나의 통털케어
.....
미국 시니어 47%, 통털케어를 걱정합니다. 메디케어로 해결되지 않는 통털케어 대책 한달에 평균 \$7,500이 필요한 통털케어 사설
엘메이 오피스
3435 Wilshire Blvd. 14Fl, LA

17일

9월 17일 (목) · 10:30am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합니다
.....
부모의 재정관이 어떻게 자녀를 부유케 하는가 유대인의 복리의 지혜를 적용한다면 한달에 100불로 시작하는 돈 나무 심어주기
샌디에고 오피스
7825 Engineer Rd 201, San Diego

21일

9월 21일 (월) · 7pm
아직도 4% CD에 묶여 계시나요
.....
점차 떨어지는 CD 이자 일년 마다 세금 내고 다른 이자 찾는 어려움 일년에 8% 복리 이자를 찾아서
라팔마 오피스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24일

9월 24일 (목) · 10:30am
아직도 4% CD에 묶여 계시나요
.....
점차 떨어지는 CD 이자 일년 마다 세금 내고 다른 이자 찾는 어려움 일년에 8% 복리 이자를 찾아서
샌디에고 오피스
7825 Engineer Rd 201, San Diego

26일

9월 26일 (토) · 11am
자녀가 해결 못하는 나의 통털케어
.....
미국 시니어 47%, 통털케어를 걱정합니다. 메디케어로 해결되지 않는 통털케어 대책 한달에 평균 \$7,500이 필요한 통털케어 사설
샌디에고 오피스
7825 Engineer Rd 201, San Diego

30일

9월 30일 (수) · 8pm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합니다
.....
부모의 재정관이 어떻게 자녀를 부유케 하는가 유대인의 복리의 지혜를 적용한다면 한달에 100불로 시작하는 돈 나무 심어주기
ZOOM 세미나

목회자 내 집 마련 세미나 2026



"목회자는 정말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의 삶은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주택 구입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대출은 가능한지,
정부와 각 기관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에서는 찾기 어려운
목회자의 현실에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을
한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이미 고민 중인 분도,
막연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일시: 2026년 9월 28일(월)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등록: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문의: 기독교일보 (213- 434-1170)



주최: 샬롬센터 (shalomcenter.net) / 특별후원: 기독교일보

강사: 이지락 장로 (샬롬센터 대표)
샬롬센터는 미국 남가주(LA 및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한인 무주택자를 위해 연방정부 공인 주택교육,
1대1 구입 상담, 그리고 사·카운티·주정부의 다운페이 보조금(Grant)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내집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